



16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육상경기장에서 끝난 제 16회 전국 꿈나무선수 선발 육상경기대회 마지막날 100m 경기에서 선수들이 트랙을 뒀고 있다.

〈대한육상경기연맹 제공〉

전국 꿈나무육상, 신기록 쏟아내며 화려한 피날레

16일 폐막... 전남체중 조영민 100m 11초10 달성 등 2관왕 광주·전남 13개 획득... 청소년대회도 각종 신기록 수립

광주에서 열린 꿈나무 육상경기대회에서 조영민(전남체중 2)이 100m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2관왕에 올랐다. 대한육상경기연맹과 광주시육상경기연맹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광주 월드컵경기장 육상경기장에서 개최한 '제16회 전국 꿈나무선수 선발 육상경기대회' 및 '제5회 한국청소년 육상경기대회'

에서 기록 잔치를 펼쳐졌다. 대회 신기록이 꿈나무대회 7개, 청소년대회 11개 등 총 18개가 쏟아진 것이다. 꿈나무대회에서 광주·전남 꿈나무들은 13개(광주 2·전남 11)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주 꿈나무들은 남중부 창던지기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했다. 서이주(광주체중 2)

는 중학2년부터 49m70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원반던지기에서 47m49를 던져 은메달을 추가했다. 김승국(광주체중 1년)은 중학1년부터 37m55를 던져 금메달을 안았다. 전남 꿈나무들은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챙겼다. 조영민은 남중부 100m에서 종전기록(11초14)보다 0.04초 앞당긴 11초10으로 대회 신기록을 세웠다. 조영민은 또 200m에서도 22초74로 끝낸, 2관왕에 올랐다. 전국소년체전 금메달리스트 정서희(광

양백운중 2)는 이번 대회 멀리뛰기에서도 거뜬히 금빛도약(5m51)을 선보였다. 김서진(고흥동초 5·멀리뛰기), 박상은(시전초 5·포환던지기), 정현주(전남체육중 2·1500m), 정혜원(전남체육중 2·3000m), 강은효(광양백운중 2·세단뛰기)도 금메달을 안았다. 꿈나무선수는 종목별 1~3위 177명을 대상으로 체력측정을 거쳐 신인발굴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꿈나무 선수가 선발되면 훈련지원금이 주어지며, 이들이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로 발탁되면 대표는 100만원,

후보는 5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꿈나무대회와 함께 열린 '제5회 한국청소년육상경기대회'에서도 신기록이 쏟아졌다. 특히 이 대회에서는 전남 선수들의 향연이 눈부셨다. 전남체육고는 1600m계주에서 종전기록보다 0.54초 앞당긴 3분21초08로 대회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전남체육고는 400m계주에서도 금메달을 이었다. 전남체육고 김현호(400m, 400m계주, 1600m계주)와 신명하(400m허들, 400m계주, 1600m계주)는 3관왕에 등극했고,

여천고 김현우(1500m, 3000m)는 2관왕에 올랐다. 박건우(해룡고·경보10km), 박근정(광양실고·높이뛰기)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심재용(광주시청 육상팀 감독) 광주시육상경기연맹 전무이사는 "꿈나무 대회는 차세대 육상 유망주를 발굴·육성하는 밑거름으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이번 대회는 청소년대회를 함께 열려 참가자들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프로야구 전망대

안방서 넥센과 화력 대결... "소사, 오랜만이네"



타격 물오른 이범호·나지완·안치홍
홈런 1·2위 박병호·강정호에 맞서

챔피언스 필드에 시원한 홈런쇼가 펼쳐진다. KIA는 지난 주에 3승3패 제자리 걸음을 했다. 4강 밖에 머물고 있는 한화·롯데와의 승부였던 만큼 기대가 높았던 시리즈지만 믿었던 에이스 양현종까지 1.1이닝 7실점으로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힘든 주를 보냈다. 마운드 코만은 그대로지만 화력은 어느 팀 못지 않다. 부상으로 빠진 필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짜임새가 좋다. 김주찬·이대형·신종길·강한울의 빠른 발, 이범호·나지완의 한방과 경험이 잘 어울리고 있다. 베테랑 김민우는 공·수·주에서 만점 활약을 하며 빈틈을 채운다. 여기에 안치홍의 상승세가 KIA 타선의 파괴력을 업그레이드 했다.

안치홍은 지난 주 6경기에서 타율 0.370 10타점을 기록하며 필 필 날았다. 12일 5년만의 멀티홈런을 때린 안치홍은 15일 롯데 장원준을 상대로 동점 스리런을 날리는 등 두 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했다. 안치홍은 최근 2년 6개의 홈런을 기록하는데 그쳤지만 지난 한 주에만 4개의 홈런을 만들며 숨겨왔던 파워를 과시했다. 주중 챔피언스필드에서 펼쳐지는 넥센과의 경기는 '한방 싸움'이다. 홈런왕 박병호를 보유하고 있는 넥센은 올 시즌 84개의 홈런을 날리며 '홈런 군단'으로 군림하고 있다. 박병호가 이미 27개의 홈런을 쏘아올렸고, 강정호도 18개의 홈런으로 2위에 올라 있다. KIA는 63개의 홈런으로 NC(71개), 두산(67개)에 이어 홈런 부문 4위. 최근 페이스가 뜨겁다. 물 오른 안치홍은 물론 이범호(8개)도 잇달아 홈런포를 날리며 나지완(12개)에 이어 두 자릿수 홈런을 겨냥하고 있다. 신종길·김다원 등의 한방도 기다리고 있다. '홈런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는 예상과 달리 올 시즌 챔피언스필드에는 홈런이 쏟아지고 있다. KIA 투수들이 33개의 피홈런을 기록했고, 타자들은 37개의 공을 펜스 밖으로 보내며 응수했다. 30경기에서 70개의 홈런이 터지면서 경기당 평균 2.33개를 보이고 있다. 홈런쇼와 함께 넥센 유니폼을 입은 소사의 친정 나들이에도 관심이 쏠린다. 나이트의 대체 선수로 넥센에 합류한 소사는 5월24일 삼성전을 시작으로 4경기에 등판, 10.55의 평균자책점으로 2패만 기록하고 있다. 임준섭과 맞대결을 벌이는 소사의 성적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KIA는 주말에는 잠실로 올라가 원조 육상부 두산을 상대로 스피드 싸움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나지완 방망이, 인천 AG 가리켰다



KBO 예비 엔트리 60명 발표
양현종·심동섭·안치홍도 포함
SK 최정 제외...8월15일 확정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협회(KBA)가 16일 인천 아시안게임 기술 위원회를 열고 예비 엔트리 60명을 발표했다. 투수 28명, 포수 4명, 내야수 17명, 외야수 8명, 지명타자 3명으로 예비 엔트리가 짜여졌다. KIA에서는 양현종·심동섭(이상 투수), 나지완(지명타자·사진),

안치홍(내야수) 등 4명이 포함됐다. 부상과 부진을 겪은 SK 최정은 예비 엔트리에서 제외됐지만 기회는 남아있다. 기술위원회는 8월 15일 24명의 최종 엔트리(프로 23명·아마 1명)를 확정한다. ◇예비 엔트리 명단 ▲투수(28명)=양현종·심동섭(이상 KIA) 윤성환·배영수·안지만·장원삼·차우찬·임정용(이상 삼성) 윤명준·이용찬(이상 두산) 류제국·이동현·유원상·봉준근·유규민(이상 LG) 손승락·한현희(이상 넥센) 송승준·장원준·김승희·김성배(이상 롯데) 김광현·채병용·박희수(이상 SK) 김진성·이재학(이상 NC)

이태양·윤규민(이상 한화) ▲포수(4명)=양의지(두산) 강민호(롯데) 이재원(SK) 김태균(NC) ▲내야수(17명)=안치홍(KIA) 박석민·김상수(이상 삼성) 오재원·김재호(이상 두산) 박병호·서건창·김민성·강정호(이상 넥센) 박종윤·황재균·문규현(이상 롯데) 박민우·모창민(이상 NC) 정근우·김태균·송광민(이상 한화) ▲외야수(8명)=최형우(삼성) 김현수·민병현(이상 두산) 이진영(LG) 유한준(넥센) 손아섭(롯데) 김강민(SK) 나성범(NC) ▲지명타자(3명)=나지완(KIA) 이승엽(삼성) 홍성흔(두산)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동강대 야구, 첫 전국대회 우승

동강대 야구부(감독 문희수)가 2006년 창단 이후 처음으로 전국대회 우승팀이 됐다. 동강대가 최근 신월야구장에서 끝난 2014 회장기전국대학야구대회 하계리그전에서 2부리그 패권을 차지했다. 강릉영

동대와의 마지막 경기가 사실상의 결승전이었다. 동강대가 2승1패, 강릉영동대가 3승을 기록한 상태에서 치러진 최종전. 동강대가 최근대의 불빛과 정재원의 2루타로 만들

어진 1회 1사 2·3루에서 4번 타자 노경재의 2타점 적시타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2회 목고협과 5회 최근대의 솔로포까지 나오면서 17-5, 7회 월드계입승을 거뒀다. 이 승리로 3승1패로 강릉영동대와 동률을 이했지만 승자승의 원칙에 따라 동강대가 우승팀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보약, 흥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흥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